

## 강풀 장편만화 스토리텔링의 경쟁력

강현구\*

### 국문초록

강풀의 장편만화는 웹툰의 새로운 가능성과 출판물·연극·영화·무빙카툰 등으로 매체를 넘나들며 전이되는 문화콘텐츠의 OSMU(one source, multi use)의 전형적 특질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의 힘이 두드러지게 돋보인다는 점 등에서 중요하고 독특한 위상을 갖는다. 최근의 '만화원작 전성시대'라는 추세를 감안해 보면, 또 장르간의 섞임(퓨전)이 가속화 되는 현실을 보면 강풀의 장편만화에 대한 관심은 만화뿐만 아니라 여타 장르의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산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강풀의 대중의 기호와 정서를 읽어내는 예민한 감각은 시사적 의미가 있는 바보형 인물의 설정이나, 계층적 경계를 지우며 성인의 세계로 진입한 고등학생들의 로맨스를 다룬 발 빠른 대응,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려졌거나 부모를 잃은 사람들의 근원적 상처 즉 분리불안에 대한 집요한 관심, 생존기 양식의 활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스크롤바를 내리면서 감상하게 되는 웹툰의 특성을 살려 영화 혹은 동영상에 가진 줌쇼트, 슬로우모션, 동시편집, 보이스 오프, 아웃 오브 포커스, 틸트 등의 기법을 적극적으로 살렸다. 특히 틸트 기법은 의문의 비밀발생에서 의외의 비밀폭로라는 미스터리물의 구조를 한 화면 내에서도 창출하는 효과까지 가져온다.

2. 강풀의 장편만화는 독특하게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시각으로 스스로의 삶에 대해 진술하고 독백·고백하는 다중화자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웃에 대한 따뜻한 이해가 행복한 세상을 가져온다는 주제와 태생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사건의 다양한 의미를 다층적 시각에서 들여다보는 신선함과 독백·고백의 형식이 주는 개인의 내밀한 심리나 감정의 진술하고 극적인 표출, 사건과 서술자의 유연한 교체에 따른 흥미롭고 박진감 있는 전개, 참회와 성숙의 서사의 꺾진성 등을 불러오고 있다.

\* 호서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교수

3. 강풀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고 타인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간직해야 행복한 세상이 온다는 믿음을 반복하여 강조하는데, 그는 이 간결한 메시지를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에피소드들을 날카롭게 잡아 삽화로 완성시키는 놀라운 재주를 보인다. 또 그 삽화들은 주로 순진하고 심성 고운 사람들이 벌이는 순수하고 때로 어수룩하기까지 한, 하지만 그래서 따뜻한 감성을 불러오는 것들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강풀의 진보적 시각까지도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온다.

아울러 그는 감정의 격한 떨림 즉 슬픔이나 공포를 극적이고 때로 과장된 포즈로 드러내거나 자기희생의 눈물과 회한을 강조하고, 이별의 고통에 집착하는 등 멜로적 특성이나 강점을 십분 활용하면서도, 신세대의 발달하고 윤택한 감정이나 행동의 대비 혹은 공포의 적절한 변주 등을 통하여 멜로적 정서가 작위적인 신과조적 정서로 흐르지 않도록 능숙하게 통어하며 다루는 그 묘한 균형점을 보이고 있다.

4. 강풀의 장편만화가 보이는 스토리의 완결성은 '나이차이 지우기'나 '환한 미소 찾기'처럼 스토리라인이 매우 뚜렷하고 구체적인 지향점을 갖는다는 점, 복선의 적절한 활용, 여유 있고 절제된 이야기 전개로 나타나는 긴 호흡의 서술 등에서 연유한다.

**주제어** : 장편만화, 웹툰, 다중화자, 삽화, 멜로적 정서, 복선, 토리라인, 만화원작, 분리불안

## I. 대중의 기호와 웹툰의 가능성

최근에 발달하고 엽기적이며 환상적인 상상력의 발현이 자유로운 만화가 대중문화 장르의 저수지 역할을 하는 형편이다. 만화로 인기를 끌었던 '다세포 소녀', '불의 검', '식객', '타짜', '아파트' 등이 영화화 되었고, '바람의 나라'와 '위대한 캣츠비'는 뮤지컬로 제작되었으며, '조선 여형사 다모', '불량주부', '폴하우스' 등은 드라마로 제작되어 평균 시청률 30%대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바야흐로 만화의 원작 전성시대가 열린 느낌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강풀의 일련의 장편 만화이다. 인터넷 만화의 새 장을 화려하게 연 강풀의 만화는 '순정만화', '아파트', '바보', '타이밍' 등이 모두 영화화 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강풀의 만화의 인기는 문화콘텐츠의 창작이나 소비 현장에서 구체적 사실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순정만화'의 경우 인터넷에 연재될 당시 총 페이지뷰 6000만, 1일 평균 페이지뷰 200만, 총 리플 수 25만으로 놀라운 수치를 보였으며 단행본으로 출간되어서도 10만부 이상의 판매부수를 올렸다. 특히 만화 강국인 일본에 만화 단행본의 국외 계약

최고액인 1천만엔(약 1억원)에 출판권이 팔렸다.<sup>1)</sup> 아울러 연극으로도 제작되어 무대에 올려졌으며, 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사업자인 TU미디어에 의해 만화에 애니메이션을 가미하고 유명 배우의 음성을 녹음한 ‘무빙카툰’ 형식으로 선을 보인다. 인터넷 만화의 원작을 출판물로, 영화로, 연극으로, 무빙카툰으로 두루 활용하니 대중문화산업의 특징인 OSMU(one source, multi use)의 가장 전형적 사례를 보여 주었다 하겠다.

그러면 강풀 만화가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이 이러한 거센 돌풍을 일으키는 것인가? 우선 그가 대중의 기호를 읽는데 매우 예민한 눈을 가졌다는 것과 웹툰(인터넷만화)의 가능성을 잘 활용하였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강풀은 『순정만화』의 경우 고등학생들의 로맨스를 다루었다는 점, 『바보』의 경우 이른바 시사적 의미가 있는 바보형 인물의 설정, 『아파트』나 『Timming 타이밍』의 경우 분리불안이라는 근원적 본능에 대한 천착 혹은 생존기 코드의 활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중의 기호와 트렌드를 집어내는데 예민한 촉각을 가졌으며, 아울러 그가 개척했다고 평가받는 웹툰의 새로운 가능성을 활용하는 데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 1. 대중의 기호를 읽는 눈

『순정만화』는 두 쌍의 연인관계가 이야기의 중심축인데 그것은 여고 2년생 한수영과 30세의 직장인 김연우 간의 사랑, 그리고 남고 2년생인 강숙과 28세의 직장인 여성 권하경 간의 사랑이 그것이다. 두 연인관계 모두에 나이차가 심한 이성과의 사랑에 빠지는 고등학생이 등장하는데, 그것도 각 연인관계에서 훨씬 주도적이고 개성적인 인물이다. 실상 이들의 상대역인 연상의 직장인들은 이들 고등학생이 펼치는 좌충우돌식의 애정공세에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편이다. 그러니 이들 고등학생들의 애정사, 일상사가 훨씬 생동감 있게 그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최근 고등학생들의 애정 혹은 일상에 대한 관심이나 조명과 무관치 않다.

『순정만화』가 인터넷에 먼저 연재된 이른바 인터넷 만화이었으니, 당연히 인터넷에 보다 적극적인 고등학생들의 반향을 위해서도 그랬겠지만 최근에는 예전에 애정물의 주 대상이었던 대학생층이 취업난에 찌든 단조로운 생활에 몰두하니 소재로서의 매력이 소진된 현실이어서 이제 관심이 자신의 요구를 발랄하고 거침없이 표현할 줄 아는 고등학생 층으로

1) 강풀만화의 일본진출은 최근의 일본문화콘텐츠의 초강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더욱 주목할 만 하다. 최근 한국에서의 일본소설, 일본만화, 일본드라마 등의 초강세 현상은 한류를 뛰어넘는 일류의 범람이라 불려도 좋을 지경이다. 2006년 국내소설 시장 한·일 점유율을 보면 한국소설이 23%인데 비해 일본소설이 31%로 역전된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해 관객 660만 명을 동원한 ‘미녀는 괴로워’, 독특한 소재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끈 드라마 ‘하얀거탑’ 등 역시 일본원작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원작 판권도 치솟아 소설은 편 당 3000만~1억원, 만화는 1000만~7000만원 선으로 2005년 말에 비해 2배가량 올랐다. 최승현, 『원작 ‘미녀는 괴로워’ · ‘하얀거탑’의 공통점은』, 조선일보 2007.3.26.

들려진 것이다. 물론 고등학생들의 사랑을 다룬 만화는 무수히 많지만, 나이차가 많은 일반 성인과의 사랑을 일탈적 관점이 아니라 진지하고도 자연스러운 애정사로, 또 연인관계에서 훨씬 주도적인 위치로, 그래서 바야흐로 계층적 경계를 지우며 성인의 세계로 성큼 다가선 현실이 그려진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또한 진보와 보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 등의 사회적 갈등이 거칠게 표출되는 이 시기에 영악하게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는 혹은 폭력적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내세우려는, 혹은 우월한 지적, 신분적 지위를 남용하려는 인간 군상에 맞서 어수룩하면서도 자신의 희생(비록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을 통해 사회의 갈등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는데 기여하거나 혹은 악착같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군상에게 반성적 삶을 보여주는 바보야말로 다시금 주목되는 인간군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보』에서 주인공 승룡은 항상 타인의 이익을 먼저 돌보는 어수룩하지만 눈물나게 착한 인물이어서 어쩌면 이 시대 각박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청량제 같은 인물로 그려진다. 최근에 영화에서 주목되는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인들의 삶을 다룬 영화들의 선전도 이런 맥락일 텐데, 강풀은 만화에서 그 대중들의 기호를 잘 포착한 셈이다.

아울러 강풀은 대중의 정서를 읽어내는 데에도 예민한 감각을 보인다. 그는 대중의 정서적 울림이 큰 세계를 포착하고 그려내는데 능란한 편인데 특히 우리의 슬픔이나 아픔, 그리고 고통을 그릴 때 그 장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한 구체적 예를 보자. 『순정만화』, 『아파트』, 『Timing 타이밍』 등 그의 주요 장편만화에는 개인사적 상처를 갖고 있는 인물들이 다수 등장한다. 그들은 언제든 덧나는 아픈 상처를 갖고 있으며, 그들의 갈망, 괴로움, 분노 등의 감정이나 몸부림에는 언제나 이 상처가 근원적으로 도사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순정만화』에서 12살이라는 나이 격차를 극복하고 순수한 사랑을 일궈내는 18세 여고 2년생 한수영은 그 발랄하고 당찬 행동으로 오히려 김연우와의 애정관계를 주도하며 건강한 매력을 한껏 발산한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에게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며, 늘 헤어짐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고는 하는데 그 불안의식의 근원에는 어린 시절 자신과 어머니를 두고 훌쩍 떠나버린 아버지에게 대한 배신감과 그리움이 깊은 상처로 각인되어 있다.

또한 『아파트』에서는 반신마비의 소녀가 부모가 급작스럽게 사망하자 주위의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한 채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자살하고 이후 원귀가 되어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타인에게 전가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저주의 굿판을 벌인다. 역시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그녀의 심연 속에 파리를 튼 채 도사리고 있다.

특히 『Timing 타이밍』에서 유년시절 박기형은 지긋지긋한 부부싸움을 지켜보는 고통 속에서 살다가 마침내 부모가 이혼하면서 서로 위선적으로 사랑을 내세우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보낸다는 설득을 받는다. 가증스러운 부모의 몸짓을

느끼면서도 박기형은 태연함을 가장하며 어린 나이에 스스로 집을 나오는 처참한 상황을 맞는다. 이후 그가 스스로 선택한 가공할 범죄의 길에는 언제나 유년의 잔혹한 경험이 자리를 잡고 있다.

물론 『순정만화』는 연정물이고 『아파트』나 『Timing 타이밍』은 공포 추리물이라 애뜻한 사랑과 공포라는 작품의 지향점이나 정서가 다르지만, 세 작품 모두에서 그 사랑의 절실함을 고조시키기 위해 혹은 공포의 정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동원한 수단은 동일하여 주목을 끈다. 즉 『순정만화』에서 한수영이 처한 외로움과 슬픔, 혹은 그로부터 벗어나 이루는 사랑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혹은 『아파트』나 『Timing 타이밍』에서 어린 소년, 소녀의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저주의 감정이 불러오는 공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동원한 동일한 방식이 눈길을 끈다.

그것은 세 중심인물 모두에 자의든 타의든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극적 체험의 설정이다. 프로이드의 지적처럼 우리들의 공포의 근저에는 '대다수의 인간들이 그것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유년기의 병적 불안이 도사리고 있고'<sup>2)</sup>, 또 '유년기의 불안에는 부모가 날 버리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속의 위협에 대한 반응'이 가장 극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순정만화』, 『아파트』, 『Timing 타이밍』에서 세 중심인물 모두가 유년기에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혹은 부모가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설정은 독자가 한수영이 느낀 슬픔과 배신감 혹은 그로부터 벗어나 애뜻한 사랑으로 가는 과정 모두에 깊은 정서적 울림이나 몰입을 불러오며, 마찬가지로 박기형이나 미연이 느꼈을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저주의 감정에 소름이 돋을 정도의 감성적, 정서적 몰입을 경험케 하고 있다. 즉 우리 모두의 심리적 근저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에 자극을 가함으로써 애뜻한 사랑 혹은 공포의 정서를 극적으로 환기시키는데, 그것은 불치병이나 신데렐라적 신분상승 같은 극적 계기 없이도 연정물을, 잔혹한 살인극의 범람 없이도 공포물을 완성하는 성숙한 필치로 나타나고 있다. 강풀의 대중적 정서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다.

또한 『Timing 타이밍』등에는 최근 주목받는 트렌드인 생존기 양식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 테러나 자연재해, 그리고 새로운 치명적 질병의 범람으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상징되는 국가간, 개인간의 무한경쟁으로의 질주에 대한 고통으로 생존은 현대인에게 절체절명의 화두로 떠올랐다.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살아남는 것이 지상명제로 등장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지선의 가치처럼 여겨지는 세대에 생존에 대한 관심은 현대인의 의식과 삶에 또 그것의 반영인 대중문화 속에 깊고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그래서 영화, 출판물 그리고 TV 프로그램을 통해 '서바이벌'이란 이름을 달 수 있는 생존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 이반 워드, 『공포증』, 태보영 역, 이제이북스, 59쪽.

『Timming 타이밍』은 연쇄적인 의문의 죽음을 둘러싸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타임스토퍼, 타임와인더, 미래예지안 등이 벌이는 사투를 다룬 이야기이다. 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사람들의 희생을 막아보고자 눈물겨운 투쟁을 벌이는데, 그 서사의 축은 사람들의 죽음이 살인과 함께 교통사고, 가스사고, 붕괴사고 등에서 연유된 것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러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절박한 의지와 함께 살아남는 생존방식이 무엇인지가 집요하고 유일한 화두가 되는 생존기 양식의 일반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2. 웹툰의 새로운 가능성

다음으로는 강풀의 장편만화가 보여 준 웹툰의 가능성을 주목할 수 있는데, 강풀은 자신의 진솔처럼 마땅한 발표지면을 얻지 못하자 인터넷에 자신의 만화를 띄우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웹툰은 출판만화처럼 네모난 칸과 이들 사이의 흐름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아니다. 칸이란 개념이 없이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해가며 그릴 수 있고 감상방식도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리면서 감상하는 형태가 된다. 이 특이한 감상방식을 들여다보면 물론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리는 속도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스크롤바의 이동에 맞추어 그림도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상태(감상은 반대로 한 화면의 위쪽에서부터 점점 더 아래로 내려오며 보는 방식이 됨)가 된다. 한 컷의 그림 크기도 제각각인데다가 그림도 흘러가며 제시되는 형국이니 그것은 마치 영화처럼 동영상을 보는 듯한 환영을 만든다.

강풀은 웹툰의 이런 상황을 한껏 이용하고 있는데,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으로는 만화에 영화의 기법을 도입하는 형태를 들 수 있다. 최근 대중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르인 영화의 기법을 다른 장르에서 수용하는 예는 하일지의 『마노카비나의 추억』과 김정환의 『남자, 여자, 그리고 영화』<sup>3)</sup>와 같은 영화소설에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두 소설에는 아이리스, 오우버 랩, 디졸브, 화이트 아웃 - 컬러페이드, 보이스 오버 등의 영화기법이 노골적으로 적시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강풀은 카메라가 피사체에 점점 근접하거나 반대로 멀리 달아나는 줌-인, 줌-아웃 기법 그리고 특정장면을 강조하거나 감성적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슬로모션 기법, 그리고 대화장면 묘사에 흔히 쓰이는 어깨너머쇼트(over-the-shoulder shot)에서 특정인물의 반응을 강조하고자 아웃 오브 포커스(out of focus)를 두 인물 사이에 교차로 사용하는 기법,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를 보여 주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다른 장면을 함께 편집하는 동시편집(parallel cutting), 카메라를 수직으로 이동하며 영상을 찍는 틸트(tilt) 기법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강풀은 『Timming 타이밍』에서 무당인 어머니와 신내림을 거부하는 딸 박자

3) 김정환, 『남자, 여자, 그리고 영화』, 웅진북스, 2003  
하일지, 『마노카비나의 추억』, 민음사, 2002.

기 사이의 날선 갈등을 제시하는 장면이나 박기형이 시간이 동요하는 충격을 극적으로 느끼는 장면에서 인물의 반응전달과 중요한 정보전달에 효과가 있는 줌 쇼트(줌아웃, 줌인)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연인에게 꽃과 반지를 전달하려 달려가다가 차에 받혀 죽는 경우처럼 비통스런 장면에서는 그 충격성과 황망함을 강조하고자 길게 늘어뜨린 화면 속에서 사람과 꽃과 반지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슬로모션 기법(흐르는 화면 때문에 연속된 동작으로 느껴지는 이 장면은 그 긴 길이가 끝날 때까지 영화의 슬로모션 기법의 효과 그대로 전달된다)으로 그린다. 또한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가진 박자기가 사람들의 죽음을 막고자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가진 강민혁을 애절하게 설득하는 장면에서는 아내와 아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나서기를 망설이던 그가 결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극적으로 부각시키고자 어깨너머쇼트에서 두 인물 사이에서 아웃 오브 포커스를 교차하여 그리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시간을 멈추는 타임스토퍼(김영탁), 미래의 참사를 들여다보는 예지몽(박자기), 바로 앞의 미래를 들여다보는 예지안(장세운), 형사반장(양성식) 등이 모여 학교교정에 벌어지는 연쇄살인을 막고자 사투를 벌이는 장면에서는 시간이 멈춰진 학교운동장에서 안타까워 하는 박자기와 양성식, 기면중에 갇혀 학교계단에 무력하게 쓰러진 장세운 그리고 교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학생들을 구하려 나선 김영탁이 3면으로 분할된 수십 개의 화면으로 동시 편집(parallel cutting) 되고 있다. 이것 역시 네모 칸에 갇힌 정지된 그림의 연속으로는 구사하기 어려운 기법이다.(설령 무리하게 한 컷의 네모 칸 속에 3분된 세 장면을 동시에 집어넣는다 해도 김영탁의 움직임에 담은 한 부분을 빼고는 수십 장면째 나머지 양 쪽 편은 시간멈춤과 기면증으로 움직임이 고정된 그래서 똑같은 모습의 반복으로 그려질 텐데, 출판물 만화의 정지된 네모 칸을 따라 감상하는 감상자는 그 끔찍한 지루함과 어색함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계속 스크롤바를 내리면서 감상하게 되는 웹툰의 성격상 자연적으로 모든 장면이 영화의 틸트 기법을 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화에서 틸트란 카메라 헤드를 상하로 부채꼴로 그리며 촬영하는 기법으로서 예를 들어 친신만고 끝에 대기업에 입사하게 된 사람을 보여준 후 카메라를 틸트업하여 대기업 사옥빌딩의 꼭대기까지 보여준다면 대기업의 위용과 그 곳에 근무하게 된 사람의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고, 반대로 빌딩 옥상의 살인자를 보여준 후 틸트다운하여 거리에 쓰러진 피살자를 보여주면 두 사람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웹툰은 성격상 연속적으로 스크롤바의 이동에 맞춰 그림이 컴퓨터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형식이라 우리의 눈은 특정 화면의 꼭대기에서 시작하여 점점 더 화면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며 감상하게 되는 형국이 된다. 즉 어떤 화면도 화면 전체가 한번에 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언제나 화면 위쪽부분부터 조금씩 베일을 벗기듯이 아래쪽으로 영역을 넓혀가며 볼 수 있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르러 그 장면의 전체가 보이는 형식이 된다. 사정이 이러니 우리는 항상 대부분의 컷을 영화의 틸트기법으로 그려진 화면 혹은 장면으로 보는 셈이 되는 것이다.

강풀은 이런 사정을 적극 활용한 경우가 많은데 그 구체적 장면들을 살펴보자. ① 『Timing 타이밍』2에서 김영탁과 박자기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강민혁을 찾아가 그의 능력에 기대어 참사를 막아주고 설득하는 장면을 보자. 강민혁이 그의 눈앞에서 가스폭발사고로 죽는 아내와 아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나서지 않겠다고 하자, 박자기는 자신이 축대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을 연출하여 강민혁이 자신의 능력을 할 수 없이 구사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처방을 한다. 그 때의 감상 장면을 재현해 보면 컴퓨터 화면의 아래쪽에서 박자기가 난간 끝에서 몸을 뒤로 던져 떨어지는 화면 일부가 보이며 이윽고 좀 더 화면이 올라가면서 그것이 축대임이 그리고 그 축대가 한없이 높은 높이임이 점점 더 드러난다. 이에 따라 감상자에게는 스스로 희생하려 죽음을 각오하고 몸을 던지는 박자기로 인한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연이어 이어지는 축대의 높이에 비례하여 자꾸만 증폭되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아울러 이 장면에서 또 다른 컷을 보면 계단을 오르며 집으로 들어서는 강민혁과 계단 아래에서 박자기와 김영탁이 올려다보는 화면이 있다. 이것 역시 스크롤바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되는 화면을 보면 먼저 등을 돌린 채 냉정하게 거절하는 말을 남기며 계단을 올라서는 강민혁이 부각되며 이윽고 좀 더 화면이 올라가면서 낙담한 채 그의 뒷 모습을 지켜보는 두 사람이 보이며 그들의 안타까운 심정이 배어나온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한 인물의 행동을 보이고 그에 따른 다른 인물들의 반응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카메라의 기법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② 『Timing 타이밍』2의 제 20화 3일전은 가사실습실로 유인되는 3명의 학생을 구하고자 양성식 형사가 나서지만 구출에 실패하고 오히려 양성식 형사가 살해되는 이야기이다. 이 제 20화의 첫 화면은 세 명의 학생이 으스스한 한기를 느끼며 교실복도를 걸어가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 컷은 유난히 세로로 길게 화면구성을 했는데 학생들은 하단에 조그맣게 그려져 있고 중간은 빈 공간으로 남겨진 채 맨 상단부분에 차례로 세 개의 대화가 자막처럼 박혀 있다. 이것을 감상하는 상황에 맞춰 보면 먼저 세 개의 대사가 연이어 제시되고 이윽고 화면이 좀 더 밀어 올라지면서 침묵의 빈공간이 보이고 이윽고 좀 더 올라지면 하단에 세 명의 학생이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익숙하게 보아왔던 보이소프 기법과 같은 효과를 연출한다. 즉 말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은 채 목소리를 통해 두렵고 혼란스런 분위기를 연출한 후 이윽고 발화자들의 정체성이 이 학교의 학생들이 드러나도록 한 경우이다.

③ 『Timing 타이밍』2의 제 15화 6일 전 편에는 박기형을 구하려 달려가던 김영탁,



박자기, 장세운 세 사람이 교실 복도 바다에 떨어진 열쇠들을 보면서 박기형이 처한 위급한 상황과 열쇠꾸러미를 갖고 실종된 차동식 선생의 의심스런 행각을 추측하는 장면이 있다. 이 화면을 보면 “지금 그 선생님의 흔적이 여기에 나타났다면 … !! 그렇다면 …!! 기형이가 끌려간 것일 수도 있어 … !!”라는 대사가 화면의 상단에 나오고 중간에는 세 사람이 아래를 보고 있는 그림이 나오며, 화면의 하단에는 크게 확대된 열쇠들이 널려 있다. 이것 역시 화면의 상단에서부터 점점 아래로 조금씩 펼쳐지며 보여지는 감상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먼저 대사는 보이스 오프처럼 들리며 발화자가 누구인지, 흔적이란 무엇인지 하는 궁금증과 두려움을 자아낸 후 이윽고 발화자가 세 남녀임이 그리고 다음에는 흔적이란 바로 차동식 선생이 들고 사라졌던 열쇠들이 밝혀진다. 한마디로 한 화면 내에서도 의문의 비밀이 던져지고 의외의 비밀이 폭로되는 미스터리 구조가 압축되어 제시되는 구조가 되어 버린다. 이것은 중요한 한 시사점을 던져 주는데, 『Timing 타이밍』이 강풀이 내세운대로 미스터리물 입을 감안하면 의문의 비밀 발생과 의외의 비밀 폭로라는 이야기 구조가 혹은 그것들이 불러일으키는 스릴과 서스펜스가 한 화면 내에서도 계속 유발되는 효과를 발휘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사실들은 강풀이 스크롤바를 내리면서 감상- 넓이와 길이가 자유롭게 설정된 그림을 동영상을 보듯이 흐르듯이 감상하게 되는 웹툰의 특성을 한껏 고조시키고자 이미 감상자들에게도 익숙한 영화의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이다. 그만큼 강풀의 만화는 칸과 흐름으로 이루어진 만화의 한계를 벗어나 영화가 이룩한 혹은 동영상이 주는 새로운 가능성, 달리말해 웹툰의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 II. 다중화자의 의미

강풀만화의 경쟁력을 소재적 측면에서의 기발한 착상에 두기는 어렵다. 그의 대표작인 『순정만화』에서 이야기의 중요한 축의 하나는 규철과 권하경의 엇갈린 사랑이다. 규철은 ‘말할 수 없는 이유’로 권하경에게 이별을 고하고 권하경은 ‘그 이유를 듣지 않은 채’ 그를 보낸다. 또 엇갈린 사랑의 바로 그 시기에 ‘누군가 상처를 위로해줄 사람이 있다면’, ‘또 나 역시 상처받은 누군가를 껴안을 수 있다면’ 하는 위로의 이야기는 요시다 아카미의 『리버스 키스』<sup>4)</sup> 같은 순정만화에는 익숙하게 등장하는 코드이다.

또한 미스터리물인 『아파트』의 경우도 ‘자살한 사람이 자신이 죽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빌딩에 올라가 뛰어 내린다거나’, ‘악념으로 뿔뿔 뭉쳐 집요하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

4) 요시다 아카미, 『리버스키스』, 시공사, 2004.

속으로 들어가 죽음을 충돌시킬 한다거나, '죽은 자들만큼이나 힘겨운 것이 죽은 자들을 보는 사람이라거나' 하는 설정은 가와구치 모도카의 『죽음과 그녀와 나』<sup>5)</sup> 같은 공포물에서도 등장하는 익숙한 코드이다. 더욱이 이승의 생을 마감한 영혼이 쉽게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는 설정이나 저승사자 같은 존재는 동양적 설화 속에서는 친근하기까지 한 소재 아니겠는가?

그러니 강풀만화의 경쟁력에 대한 설명은 소재적 차원의 논의를 넘어서야 할 것인데, 그 첫 논의는 그의 만화에 등장하는 서술시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소설은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화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 어떤 시각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가 하는 시점이 중요한 논의점이 되는데, 소설문의 핵심 중의 하나는 당연히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 흔히 1인칭 주인공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등의 논의가 그것이라 하겠는데, 만일 특정 작품이 독특한 시점을 보인다면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예가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데, 그 중 『덤불숲』과 『붉은 방』을 먼저 떠올리고자 한다.

임철우의 『붉은 방』<sup>6)</sup>은 1980년대의 광기 어린 폭력을 그리면서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화자를 두 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의 전작인 『아버지의 땅』에서 화자였던 군인인 나는 『붉은 방』에서 제대를 해서 고등학교 선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좌익과 관련된 가족을 가지고 있고, 소름끼치는 금속성의 냉기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붉은 방』은 그런 나를 통해 폭력의 시대, 이데올로기의 시대에 좌익과 관련한 고통을 온몸으로 겪는 인간군상을 그려낸다. 하지만 동시에 『붉은 방』은 한편으로는 나를 심문하는 형사를 화자로 내세워서 형사의 잔인한 행동과 심리의 근저에 깔리는 개인사를 그림으로써 폭력에 드리워진 체제의 폭압성과 함께 개인사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고 있다. 즉 형사를 화자로 내세워 그려가는 이야기의 축은 부모를 폐인으로 만들고 집안을 몰락시킨 좌익에 대한 사적 감정이 고문의 잔인함과 고문자의 야수적 행위를 합리화 시키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는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sup>7)</sup>

이처럼 『붉은 방』은 좌익과 관련되어 고통 받는 피해자와 체제의 수호자로 나선 가해자를 동시에 화자로 내세웠을 뿐 만 아니라, 특히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8절까지로 나누어진 이야기를 1,3,5,7의 홀수 절들은 고교교사인 나를 화자로 2,4,6,8의 짝수 절들은 형사인 나를 화자로 번갈아 내세움으로써 절정부로 치닫는 대립과 혼돈의 치열함을 박진감 있게 그려내며 1980년대에 침예하게 대립되었던 세력들을 혹은 당대의 사회적 정황을 세밀하고도 다양하게 그려낼 수 있었는데, 그것은 곧 1980년대의 시대적 폭압성을 다룬 많은 소설 가운데에서도 『붉은 방』이 독특한 위상을 갖게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 이러한 다중화자 선택의 두드러진 또 다른 예는 아쿠다카와 류노스케의 소설 『덤불 숲』<sup>8)</sup>에서도

5) 가와구치 모도카, 『죽음과 그녀와 나』, 서울문화사, 2006.

6) 임철우, 『붉은방』,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1988.

7) 홍정선, 『폭력과 작가의 양심 - 임철우 론』, 문학사상, 1988, 12월호, 223-225쪽.

확인할 수 있다. 『덤불 숲』은 대숲에서 젊은 남자의 시체가 발견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누가 왜 이 남자를 죽였는지가 관심이 된다. 범인을 찾기 위해서 사건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목격자 등 제 3자들의 증인이 진술되고, 그 뒤에 자기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3명의 진술이 각각 고백형식으로 이어져 있다.

특히 후반부 당사자 3명의 진술로 들어간 후 그들은 서로 자기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하나의 사건이 다양한 양상으로 제시되어 도대체 덤불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든다. 아쿠타카와는 이러한 후반부 진술을 고백이라는 형식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결국 호색한이자 도적인 다조마루의 고백을 통해서는 도적으로서,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위압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마사고의 진술을 통해서는 남편을 죽인 여자의 참회라는 형식 속에 숨은 정숙한 여자로서의 자부심이 깨진 데 대한 수치심과 자신을 오히려 경멸하는 남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며, 남편의 고백을 통해서도 남편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기까지를 원했던 악녀 마사고에 대한 저주의 감정이 드러난다.<sup>9)</sup>

이처럼 다중화자의 사용은 사건의 다양한 의미를 다층적 시각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고, 인간의 시각이 지닌 의미나 실체를 돌아보게 하며 또 그것이 고백의 형식으로 나타날 때에는 인간의 내밀한 심리나 감정의 극적 표출의 가능성을 가져오는 등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강풀의 만화에 나타난 다중화자의 의미를 살펴 보기로 한다.

물론 만화의 경우는 이원복의 『먼나라 이웃나라』의 경우처럼 사건외적 화자가 전면에 뚜렷하게 노출될 수도 있고, 사건내의 특정한 인물이 이야기를 진술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화자의 해설이 없더라도 인물들의 대사만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그에 비하면 『순정만화』는 화자가 두드러지고 화자의 독백 또한 이야기의 진행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 『순정만화』의 화자는 작품내 인물이 말하는데 이야기의 진행이 작중인물 화자의 시점에서 진행되며, 자신이 벌이는 사건을 진술해가는 사건내적 인물이다. 즉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자신의 시각에서 진술하는 방식인데, 그 유별한 특징은 화자가 다자라는 점이다. 즉 중심인물이나 주변인물을 막론하고 각 인물을 화자로 돌려가며 내세워 각 인물의 시점에서 각자가 겪는 사건을 진술하는 식이다.

다중화자가 갖는 첫 번째 의미는 강풀의 장편만화에 나타난 주제 혹은 화두와 결정적인 관련을 갖는다는 점이다. 강풀이 되풀이 하여 말하는 주제는 이웃에 대한 따뜻한 이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믿음이다. 그런데 강풀은 이웃에 대한 따뜻한 이해는 무엇보다도

8) 아쿠타카와 류노스케, 『덤불숲』, 『라쇼몽』, 좋은 생각, 2004.

9) 한국일어일문학회 편, 『나쓰메 소세키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까지』, 글로세움, 2003, 118-119쪽.

이웃이 가진 상처를 함께 보듬을 때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자연히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타인이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모두가 각자의 근원적인 상처를 진솔히 드러낼 때 모든 오해와 편견이 풀리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픔을 갖고 사는 그래서 따뜻하게 사랑받아야 할 가엽지만 소중한 존재로 태어난다.

실제로 강풀 장편만화 속 인물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연인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 받은 상처받은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어쩌면 그것은 모든 인간이 지닌 숙명적인 짐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강풀이 믿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그들 모두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드러내고 타인의 아픔과 상처에 진심으로 동감하는 몸짓과 언어가 필요할 텐데, 그것은 자연히 인물들이 각자 화자로 나서서 자신이 겪은 사건과 심정을 직접 토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중화자의 설정은 강풀장편 만화에 나타난 주제 혹은 화두와 태생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둘째로 다중화자는 역시 개인의 내밀한 심리나 개인사를 섬세하고 극적으로 드러내는데 기여한다. 『순정만화』의 경우를 보자. 『순정만화』는 31세의 직장인 김연우와 여고 2년생인 한수영의 애뜻한 사랑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27세의 직장녀 권하경과 남고 2년생 강숙 그리고 이들 남녀와 얽히는 규철과 봉어빵 장사 아줌마의 엇갈린 사랑을 담고 있다. 그런데 강풀은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면서 독특하게도 각 인물의 시점에서 그들이 겪는 사건을 직접 진솔하게 만들고 있다. 즉 김연우를 화자로 내세워 자신의 외로운 생활 속에 문득 찾아든 한 여고생과의 사랑을 애뜻하면서도 조바심 나게 경험하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으며, 한수영을 화자로 내세워서 큰 나이차를 느끼면서도 김연우의 순진하면서도 진실한 자세에 조금씩 이끌려가는 사랑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두 인물을 각각 화자로 내세워 진술하는 방식은 나레이션이 주를 이루는 독백·고백 형식이어서 자연히 개인의 내밀한 심리나 개인사를 진술하고 세밀하게 드러내는 형국이 되고 있다. 즉 김연우의 경우 어린 여학생과의 로맨스라는 도덕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과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이끌려가는 사랑에 대한 갈망사이의 흔들림이, 그리고 사랑에 이제 막 눈떠가는 조급하고도 어색한 몸짓이 예리하게 그려지고 있다. 아울러 그가 사랑에 목말라하는 근저에 깔린 외로운 생활에 지친 개인사가 숨김없이 고백되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에 더해 고독과 외로움에 지친 한 인물(도시의 평범한 소시민)에 대한 따뜻한 동정 혹은 그로 인한 몰입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화자를 달리하며 이야기를 전개하는 독백의 방식은 한수영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12살이라는 큰 나이차를 뛰어넘어 그녀가 왜 그렇게 사랑에 몰입하게 되는지를 절절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녀의 조바심 나는 사랑 속에는 그녀의 아픈 개인사가 또한 자리 잡고 있음이 고백된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안게 되는데 그것은 아버지와의

이별이다.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다는 뻔하고 헛된 약속만을 남기고 등을 보인 채 돌아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녀는 아버지의 돌린 등이 영원한 상처로 각인되어 살아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엄마와 새롭게 결합한 새아버지와 오빠에게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사랑이나 믿음 같은 것에는 냉소적 자세를 보이며 자신만의 울타리에 침잠한다.

하지만 김연우를 만나 친절하고도 솔직한 마음에 이끌려 사랑을 싹터 가는데, 그에 발맞추어 세상에 대해서도 너그럽고 낙관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 물론 새롭게 사랑에 눈을 떠가는 18세 소녀의 귀엽고 순진한 성장에도 눈길이 가지만 한편으로는 한수영의 독백을 통해 드러나는 그녀의 슬픈 개인사에 몽클한 감정이 솟는다. 강풀이 화자를 바꿔가며 전개하는 이야기 방식은 사건을 다양한 시선으로 재단해냄으로써 삶의 다양한 의미와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는 재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독백·고백의 형식을 통한 개인의 내밀한 심리와 사연을 들여다보게 하는 재미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주게 된다.

강풀의 이런 서술방식은 그가 『순정만화』에서 주변인물을 그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권하경, 강숙, 규철 모두 화자로 나서 독자적인 이야기의 전개를 맡는다. 이 역시 그 과정을 통해 3인의 얽힌 사랑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한번 굴절된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만의 체험이나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여주게 된다. 물론 이것은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과 의미를 다층적으로 드러내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그와 함께 역시 주목하여 바라볼 것은 그들의 이별과 사랑에 담긴 개인의 내밀한 심리와 개인사의 진솔한 드러냄 혹은 그를 통한 독자의 들여다보기의 재미 혹은 강렬한 몰입의 감동이다. 독백·고백이라는 방식의 강점에 힘입어 규철이 권하경을 떠나야했던 아픈 사연과 고통, 권하경이 규철에 갖는 원망과 자책의 혼돈스런 감정, 권하경이 연하의 강숙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미묘한 감정의 흔들림 등이 솔직하고 절실하게 드러난다.

셋째로 다중화자는 특히 미스터리물의 경우 이야기에 극적 긴장감을 불러 모으는데 기여한다. 『아파트』의 경우를 보자. 『아파트』는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연쇄적인 의문의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이 중심인데 의문의 죽음에 감춰진 비밀에 처음으로 접근하는 고혁, 의문의 변사자와 고혁의 행동을 예의 주시하는 신문기자인 장미현, 저승사자의 역을 수행하는 택배사 직원 김상훈, 연쇄살인범의 뒤를 쫓는 강동서 형사 양성식, 우울증에 걸린 32세의 이혼녀 신정수, 처절한 외로움 속에 자살한 704호의 여인 등이 모두 화자로 나서 그들만의 시선을 통해 사건을 들여다보고 내밀한 고백을 한다.

각 인물의 진솔과 독백·고백을 통해 일련의 죽음을 두고 벌어지는 공포와 미스터리가 증폭되어 제시된다. 아파트에 소등되는 가구가 늘어날 때마다 의문의 변사자가 나타나는 공포에 직면하여 고혁은 비밀의 뒤를 캐가는 한편 희생자를 줄이고자 처절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를 통해, 심장이 파열되어 죽는 끔찍한 의문의 죽음이 불러오는 공포와 처절한 노력에

도 불구하고 일련의 변사를 막지 못하는 절망감이 함께 엄습한다. 또한 양성식을 통해서도 범인을 잡으려는 형사의 집요한 추적과 추리를 뒤따라가며 가슴조이는 스릴과 함께 변사자나 저승사자 혹은 죽음을 불러오는 혼령과 맨몸으로 부딪히는 서스펜스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저승사자 역의 김상훈을 통해서도 사자들과 직접 조우하고 생자와 사자가 뒤섞인 암담하고 몽환적인 공포를 겪게 된다. 특히 처절한 고통과 외로움으로 자살한 후 원귀가 되어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704호 여인의 한 맺힌 목소리는 스스로의 토로이기에 더욱 섬뜩하고도 날카롭게 전해진다. 이처럼 미스터리물인 『아파트』에서는 각 인물을 화자로 내세우는 방식 때문에 사건전개가 박진감 있고, 다가서는 공포 역시 현실적이고도 강렬한 극적 체험으로 느껴진다.

넷째로 『아파트』나 『Timing 타이밍』과 같은 미스터리물에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704호 여인이나 박기형 같은 범죄자의 토로는 독백·고백 형식이 불러 일으키는 진실성을 담보로 하여 처절한 ‘참회’로 나타나며, 그것 때문에 강풀의 만화에 악인이 부재하는 것처럼 비쳐진다. 『아파트』의 704호 여인의 경우를 보자. 그녀는 자신의 불우한 경험을 통해 형성한 저주스런 의식이 부서져 나가는 과정을 자신이 직접 진술하고 고백하는 형식을 빌어 하나하나 드러낸다. 즉 그녀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혁이 그녀가 의문의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녀를 살리고자 절박하게 애쓰는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따뜻한 인간애를 느끼는데, 그 가장 극적인 장면은 그녀가 자신의 저주를 풀고자 방문한 집에서 문득 들려오는 자신을 구하고자 하는 고혁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며 창백하고 오싹한 얼굴에 가볍게 미소가 흐르는 장면이다. (공포와 스릴이 느껴지는 극적 장면에서 고혁의 간절한 외침속의 따뜻한 마음씨가 그녀의 얼굴에 미소를 번지게 하는데, 그 찰나적인 미소로 그녀의 심리적 변전을 날카롭게 그려내는 강풀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아울러 그녀는 자신이 저주를 풀어내고자 방문한 집에서 자신으로부터 부모를 지키고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서슴없이 나서는 딸의 모습에서도, 더 이상 그녀 자신과 같은 슬픈 상처를 만들지 말자는 저승사자의 간절한 호소에서도, 자신은 우울증에 걸려 고통을 받으면서도 미연의 슬픈 사연을 듣고 한없이 같이 슬퍼하는 신경수의 다독거림에서도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자신을 향한 이웃의 따뜻한 이해와 사랑을 느끼게 된다. 여기에서도 그녀가 화자이기에 그녀의 심리적 변전에 담긴 고통과 희열 그리고 놀라움이 그 떨림 그대로 절실하고 호소력 있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절절한 참회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이 사람… 나를 구하겠다는 이 사람… 원한과 증오만이 가득 차서 나 자신을 잃었을 때 나를 찾은 사람… 지금 이런 내게 손을 내밀며… 너무 늦은 것이 안타까운 듯이 말하는 이 사람…”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그 학생…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던 그 학생… 두려움에 주체할

수 없을만큼 몸을 떨면서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던 그 학생 … 나는 … 왜 … 다른 사람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

“그리고 또 한 사람 … 나를 붙잡고 … 내눈을 마주보던 그 사람 … 이런 나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 사람 … !! 잠깐이었지만 … 그 사람이 그렇게 날 쳐다본 덕에 지금 나는 겨우 … 나 자신을 찾게 됐어 …”

“내가 찾아갔던 그 여자 … 자신도 나와 같이 혼자였다면서 … 오히려 나를 위로해주던 따뜻한 목소리 … 나를 이해한다던 목소리 …”

결국 그녀는 스스로 아픔과 고통이 사라졌다고 말하며 어색하지만 진심으로 웃게 되었다고 고백한 채 편안하게 이 곳을 떠난다. 그런데 그 끔찍한 소동과 저주스런 원한을 서서히 잠재우며 오히려 따뜻한 이해와 사랑에 도달하는 어렵고 처절한 참회의 과정은 그녀의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면 힘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목젓이 뜨거운 절규요, 회한이고, 토로였을 텐데 그녀 스스로가 화자가 되어 풀어내는 한편의 극이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섯째로 다중이 화자로 나서 독백·고백하는 형식은 인물들의 각성을 통한 정신적, 지적 성숙을 한층 실감나게 한다. 강풀의 만화에서 대부분 인물들은 행복한 삶과 세상을 만드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진지하게 문자 그대로 '각성' 한다. 그들은 삶의 여정을 통해 증오심으로 일관하던 오도된 시각을 교정하고, 타인과 사회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인간된 도리와 헌신을 지각하게 되며, 자신만의 울타리를 벗어나 타인에 대한 너그러운 이해를 배운다. 이런 각성과 그를 통한 지적, 정신적 성숙의 꺾진성은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풀어내는 독백·고백 형식 혹은 그 형식이 불러일으키는 진실성의 신화에 기대어 있다.

### Ⅲ. 삽화와 멜로적 정서

강풀의 순정만화가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간결하다. 타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이해가 세상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다. 강풀만화의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상처를 지닌 인물이다. 그들은 실연 당했거나 아버지가 떠났거나, 부모가 없는 고아거나, 빚에 몰려 전락했거나, 극심한 소외와 두려움으로 자살했거나 하나같이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갈구하며 타인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린다. 또 반대로 타인의 아픈 상처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안다. 그러니 강풀만화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아픔과 그들을 보듬어야 행복한 세상이 온다는 믿음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강풀은 이 메시지를 매우 간결한 구도와 어법으로 말한다.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꾸미지도

않고 거창하게 힘주어 말하지도 않는다. 또한 사회적 모순이나 부조리에 대한 거창한 비판이나 개혁 같은 구호도 난무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통해 그 메시지를 거듭거듭 확인한다.<sup>10)</sup>

그런데 강풀의 이 메시지가 재미있게 읽히는 힘은 그가 그저 타인사이의 따뜻한 관심과 이해야말로 사랑의 근간이고 또 그래야 행복한 세상이 온다는 믿음을 범박하게 그려내는 수준에서 그쳤다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랬다면 이제는 식상하리만치 귀에 익은 노래를 다시 한가하게 재방송 하는 꼴이 되었을 것이다. 강풀의 순정만화가 갖는 힘은 이 간결한 메시지를 매우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는 이 믿음을 그냥 건성으로 지나쳐 버리거나 동어반복적으로 되 뇌이지 않고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고 곱씹어 본 흔적이 역력하다. 『순정만화』나 『그대를 사랑합니다』에는 그의 예민하고 진지한 시선에 포착된 사랑의 프로필들이 놀라운 공감을 일으킨다.

강풀의 사랑의 메시지가 감동적이고 재미있게 전달되는 첫 번째 비결은 서로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거듭 확인하는 동화 같은 세계가 강풀의 예리한 시각에 포착된 삽화들에 의해 진부함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 강력한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에서 온다. 강풀은 우리의 일상사에서도 사랑의 극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삽화를 불러내는데 놀라운 재주를 갖고 있다. 등장인물들이 불쑥 내뱉는 말이나 행동 속에서도 사랑의 감동을, 아울러 서로에 대한 깊고 고운 관심을 돌발적이고도 강렬하게 환기시키는 삽화를 능숙하게 잡아내고 있다. 그런 삽화의 일단을 보자.

삽화 1) 30세의 직장인인 김연우는 여고 2년생인 한수영을 만나 호감을 갖게 되지만 조용한 성격과 큰 나이차이 때문에 자신의 관심을 애써 감추려고 노력한다. 어느 날 한 엘리베이터에 타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그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우린 서로 넥타이가 같네요’ 하는 설렁한 농담을 하고 쑥스러운 상황에 절절맨다. 이 넥타이는 이후 절묘한 소도구가 되어 두 사람 사이의 자잘한 에피소드를 엮으며, 사랑의 애뜻한 감정, 코믹한 상황 등을 연출하며 재미를 배가한다. 교복 넥타이를 두고 와 김연우의 넥타이를 대신 매고

10) 강풀의 만화가 웹툰에서 성공한 후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수순을 보이는 점은 정철연의 『마린블루스』, 심승현의 『파페포포 메모리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파페포포 메모리즈』 경우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웹툰은 디지털이라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순수한 사랑, 추억 같은 아날로그적 감성에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다.

“『파페포포 메모리즈』가 네티즌과 교감했던 코드는 첫사랑과 추억이라는 아날로그 감성이었다. 깊은 밤 모니터 앞에 앉아 혼자 웹서핑을 하는 네티즌은 결집된 의사표현을 하는 집단에 앞서 외로운 개개인이었던 것이다. ‘싸이월드’로 대변되는 미니 홈페이지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프라인 못지않게 폭넓고 깊은 타인과의 유대감이다. 결국 외로운 네티즌 개개인은 작은 공감대만 형성돼도 곧바로 깊은 유대를 나누게 되었다. 『파페포포 메모리즈』에 담긴 소소한 삶의 작은 이야기들에는 웹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의 향기를 풍겼던 것이다. 작가자신이 젊은 네티즌이고, 그런 네티즌의 속성을 잘 이해했기에 가능했던 성공이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편, 『만화콘텐츠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학교에 가서 주임교사의 눈총을 받는 일, 빌려간 넥타이를 핑계 삼아 한수영이 김연우에게 넥타이를 선물하고 넥타이를 댈 줄 모르는 김연우가 고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자 대신 한수영이 엉터리로 넥타이를 매주는데, 이것을 애써 감춰가며 매고 다니는 김연우의 우스꽝스러운 행동 등이 차례로 벌어진다. 새롭게 사랑에 눈떠가는 연인사이의 애뜻하고 어설피 사랑이 두 연인의 나이와 성격에 꼭 맞게 재단된 듯 펼쳐지는데, 나이차를 두고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를 코믹하고도 따뜻하게 잡아내고 있다.

삽화 2) 여고 2년생 한수영은 30세 직장인 김연우를 만나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의 아픈 과거를 고백하게 된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신을 남겨두고 떠나버린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데, 지금도 헤어질 때 보았던 아버지의 뒷모습에 여전히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다. 김연우는 한수영과 헤어지면서 '뒷걸음으로만' 돌아서는데 한수영이 그 이상한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묻자, 김연우는 어색하지만 순진한 표정으로 다시는 뒷모습을 보여 한수영을 가슴 아프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다. 한수영은 김연우의 돌연하지만 너무나도 자상하고 세심한 배려에 진심으로 뜨거운 감동을 받는다. 연인의 아픔에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고, 그 상처를 보듬고자 애타하는 심정이 김연우의 작은 몸짓 속에 절실하게 드러난다.

삽화 3)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칠순을 넘긴 김만석은 우유배달을 하며 알게 된 파지수집을 하는 송이뿐을 만나 애뜻한 사랑을 나누게 된다. 하지만 서울생활에 지친 그녀가 강원도 고향으로 떠나게 되고, 자신 역시 죽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녀를 잡지도 못한다. 하지만 애뜻한 감정이 남아 그녀가 떠난 집 앞에서 그녀를 회상하다가 그녀 집에 이사 온 아이를 만나게 된다. 아이는 문득 중요한 약속을 떠올렸다고 하며 까치발을 세운 채 집 앞의 가로등불을 켜는데, 그 약속이란 송이뿐이 늘 그랬듯이 새벽길에 우유배달을 하는 김만석을 걱정하여 새벽마다 가로등불을 켜듯이 아이에게도 불을 켜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 것이다. 새삼 김만석은 수년 동안 새벽길을 밝힌 가로등불이 송이뿐의 간절한 사랑이 담긴 손길이었음을 알고 애뜻한 감정을 떠올린다.

결국 강풀의 『순정만화』나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풋풋한 사랑의 아름다움과 그로 인한 행복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라는 분명하고도 명쾌한 메시지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중요한 한 방식은 그가 우리의 일상사에서 벌어지는 작은 에피소드를 적절하고 날카롭게 잡아 삽화로 완성시키는 재주가 있음이 보여 진다. 또 그 삽화들은 주로 순진하고 심성 고운 사람들이 벌이는 순수하고 때로 어수룩하기까지 한, 하지만 그래서 따뜻한 감성을 불러오는 것들이다.

강풀의 사랑의 메시지가 절실하면서도 재미있게 읽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멜로의

감정을 상당히 능숙하게 다룬다는 점이다. 걱정적 감정, 자기희생의 미학, 이별의 고통에 대한 집착 등 멜로적 감정을 다루면서도 강풀은 흔히 그것들이 보이기 쉬운 과장되고 감정과 잉의 신파조적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별과 사랑에 얽힌, 혹은 선한 사람들의 힘겨운 세상살이를 그리며 감정이나 정서의 강렬한 떨림을 그리면서도 그것이 작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그래서 오히려 독자의 공감어린 몰입을 차단하는 신파조적 신세타령으로 가지는 않는다. 강풀은 그 묘한 균형점을 잘 알고 있다. 이제 그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순정만화』에서는 한수영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을 버리고 떠난데서 오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상처에 대해 이른바 ‘쿨’하게 대응하지 않는다. 그녀는 여전히 그 상처에 전전긍긍하며 사랑하게 된 김연우에게 그 상처의 아픔을 고백할 때에도 그 몸짓이 크다. 또 권하경 역시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고하고 떠나버린 규철을 잊지 못하고 분노와 그리움 그래서 한이라 불릴만한 감정에 여전히 싸여 있다. 그녀 역시 그 이별의 아픔에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며 그녀의 일상 모두는 그 자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정서나 감정들은 격하게 토해지며 그 삶의 아픔을 절실하게 전하면서도 일방적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슬픔을 강요하는 자기만족적 신세타령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강풀은 그 조심스러운 균형점을 잡고자 고등학생으로 그려진 젊은(아니 어린) 세대의 발랄하고 당찬 그래서 거침없는 삶의 태도를 대치시키고 있다. 그것이 멜로적 감정을 적당히 통제하고 있다. 즉 한수영은 언제 듯 덧나는 상처에 매여 있으면서도 신세대적 발랄함과 당돌함으로 연인을 향해 항상 뭔가 꾸미고 자극하고 움직인다. 선물을 먼저 건내고, 사랑의 표현을 요구하며, 쭈뼛거리는 김연우를 항상 충동질한다. 한마디로 아픔은 여전히 간직할 수밖에 없지만 또 그것에 가끔은 주저앉을 만큼 아파하지만, ‘나는 문득 참을 수 없는 젊음의 발랄함으로 새롭게 시작할 힘이 있다’는 식이다.

아울러 강숙 역시 그 신세대적인 놀라운 당돌함과 거침없음으로 사랑의 전선을 헤쳐 나가는데, 바로 그 힘 때문에 자신에게 가해지는 권하경의 의도적인 매몰참에 아파하면서도 새롭게 다시 일어서곤 한다. 그래서 강숙은 ‘쿨’한 슬픔을 연출하면서도 좌충우돌식의 건강 한 포즈로 생기 있는 재미를 연출한다. 또 권하경의 짙은 슬픔이 적당한 감정적 울림을 연출했다 싶은 장면에서는 으레 등장해 그 감정의 신파조적 정서로의 부식을 자연스럽게 차단한다.

또한 『아파트』에서는 이별하고 버려지는 데서 오는 아픔과 자기희생적 포즈가 그 극점까지 나아간다. 반신마비의 장애아로 태어나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 수 없던 미연이 부모가 급작스럽게 죽자 고독과 절망감 속에서 손의 동맥을 끊고 자살하는 비극은 거듭거듭 그 격한 감정의 분출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녀의 처절한 고통의 토로는 거침이 없고 자극적이다. 그녀는 온몸으로 자신의 아픔을 절규한다. 또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변사를

막고자 나서는 고희은 점차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으로 치닫는다. 그의 희생의 제스처어는 극점까지 나아간 듯 의문의 죽음이 예상되는 모든 사람을 향해 온 몸을 던져 절규하고 부르짖는다. 처절한 호소가 그 떨림 그대로 전달된다.

하지만 역시 그 감정의 격한 떨림에 대한 적절한 몰입의 시간이 주어지고 나면 곧 그것은 병적 감정의 지루한 혹은 과장된 나락으로 나아가지 않고, 새로운 공포의 순간이 엄습하며 다시금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된다. 실례를 보자. 앞 동의 704호에서 계속 불행의 약속된 시간인 10시에 불이 꺼지고 파리한 모습의 여자가 어른거리자 고희은 그녀를 구하고자 황급히 그녀의 집으로 뛰쳐나간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고 그는 고통에 찬 절규를 계속한다. 죽음을 맞이할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는 통곡하며 절규하는데, 그 상심의 정도가 비련에 가깝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강풀은 슬픔과 인간애의 깊은 심연을 거쳐 다시금 팽팽한 긴장의 상태로 돌입하게 하는데, 그것은 곧바로 이어진 새로운 공포적 상황의 조성을 통해서이다. 바로 그 순간 옆집의 문이 열리며 황급히 뛰쳐나온 소녀가 부모를 구해달라는 절박한 요청을 하는데, 그 부모는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사자의 방문을 받고 곧 비참하게 죽을 운명에 처한 상태이다.

이처럼 걱정적 슬픔과 조바심 나는 공포를 적절히 변주하며 멜로의 정서를 적절히 통어하는 방식은 계속 이어지는데, 그 또다른 극적인 예는 미연과 고희은이 걱정적 감정의 절정으로 치달은 순간에서 다시 만나는데서 나타난다. 미연이 주위 사람들의 타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서서히 확인해가며 자신의 뼈 속까지 사무쳤던 저주의 감정을 서서히 거두어가다 드디어 이웃의 사랑을 선선히 인정하는 걱정의 순간에, 아울러 그녀와 마주했던 고희은이 그녀의 아픔을 온전히 대신 받겠다고 절절히 호소하는 그래서 희생의 포즈가 그 극점에 달한 그 순간에, 강풀은 또 다시 절묘한 설정을 통해 다시금 공포의 끈을 옥죄인다. 고희은 거듭 당신의 아픔을 '가져가겠다'는 말을 반복하는데, 이 말은 예사롭지 않게 강조된다. 당신의 아픔을 '공감한다'가 아니라 '거두어 가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이 계속되는데 그것은 곧 다가올 공포의 전조였음이 밝혀진다. 즉 저주로 뭉쳐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녀의 악령 역할을, 바로 그녀의 고통과 슬픔을 전해 받은 고희은이 다시 이어간다는 설정이다. 이제 다시금 그 끔찍한 공포가 이어지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바람직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멜로적 정서에 담아 전달하는 방식은 강풀의 장편 『바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바보』에서는 타인에 대한 희생의 미학이 그 극점까지 나아가서 주인공 바보는 어린 시절부터 한 여성에게 그녀의 무관심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순정을 다해 10여 년을 기다리고 헌신하며, 끝내는 그 순수한 영혼으로 그녀를 일깨워 그녀가 잃어버렸던 예술가의 꿈을 되찾아 다시 음악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든다. 바보의 긴 기다림과 헌신은 극적인

것이어서 그녀가 미국에 유학 간 10여 년 동안을 한 장소에 서서 하염없이 기다리며 또 그녀가 어린 시절 오해로 불쑥 내뱉은 '보기 싫다'는 말을 목숨처럼 지키기 위해 그녀의 곁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 경멸하고 멀리하는 동생을 위해서는 죽은 부모를 대신해 한결같이 헌신하며 그녀가 중병에 걸리자 자신의 신장을 내놓는데 흔쾌히 동의한다. 이런 희생의 절정은 자신은 혈액형이 달라 친구가 대신 신장을 내놓게 되자, 동생과 친구를 살리고자 그 친구를 살해하려는 폭력배에게 자신의 신분을 친구처럼 위장한 채 선선히 죽음을 맞는 것에서 가장 절정을 이룬다. 자신을 구박하고 멸시하는 상대에게 조차 헌신적 사랑을 베풀고 끝내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니 눈물과 회한을 동반한 멜로적 정서는 그 극점까지 이른 셈이다.

아울러 『바보』에서는 빛에 몰려 전락하는 한 여성의 눈물어린 고통과 그 속에서의 애달픈 사랑이 그려지고, 악인의 집요한 방해와 괴롭힘이 드러나며, 헌신적인 상대의 도움으로 곤경에 처한 여성이 고통의 세월을 거쳐 다시 행복한 미래로 들어서는 등 멜로물의 전형적 구조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강풀은 장편에서 거듭되는 자신의 메시지를 격한 감정과 눈물, 그리고 사랑과 이별의 기쁨 혹은 고통을 통해 그리려는 작업을 계속하는데, 『바보』에서도 그 눈물과 회한, 혹은 자기희생의 미학 등의 멜로적 정서를 강조하면서도 역시 작위적인 감정의 일방적 표출로 이어지는 신파조적 정서로는 끌고 가지 않는다. 『바보』에서는 문자 그대로 '바보'가 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바보는 끝내 목숨을 내놓는 극점까지 내몰리지만 한 순간도 그것을 자기희생이라 여겨 스스로 비통함으로 절규의 몸짓을 보이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희생이나 헌신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식이다. 그래서 희생과 헌신은 오히려 그에게 기쁨이 된다. 자연스럽게 그는 이별과 무관심,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역설적이지만 담담하게 반응한다. 바로 그 담담함이야말로 그의 헌신과 희생을 대가없는 것으로 만들어 더욱 빛나게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보에 나타난 멜로적 정서를 독자의 몽클하고 극적인 정서를 불러오는 데에서 적절히 멈추도록 통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즉 눈물과 회한의 정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듯 독자에게 퍼붓는 감정의 과잉으로, 혹은 그 때문에 오히려 독자의 몰입을 방해하는 지경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통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셈이다.

물론 강풀이 바보형 인물을 설정한 이유는 각박한 세태 속에서 영악한 사람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판치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또 『바보』에서 극점까지 끌어올린 자기희생과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개연성 있게 드러내는데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그리려던 멜로적 정서를 절실하지만 작위적으로는 보이지 않게, 즉 자연스럽게 전달하려는 작가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 IV. 스토리의 완결성

강풀만화의 또 다른 강점의 하나는 그의 장편만화들이 갖는 이야기의 완결성이다. 그의 장편만화는 하나같이 잘 짜여진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강풀 자신은 이 점을 설명하며 새로운 만화를 집필할 때 이미 완결된 스토리를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어색한 비약이나 개연성 없는 스토리 전개가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스토리가 탄탄하다는 것인데, 그의 장편이 갖는 스토리의 완결성은 주 스토리라인이든 부 스토리라인이든 매우 뚜렷하고 구체적인 지향점을 갖는다는 것과 복선의 적절한 활용, 그리고 그의 서술이 긴 호흡을 갖는다는 점에서 온다.

우선 그의 장편만화는 스토리가 뚜렷하고 매우 구체적인 지향점을 갖는다는 점인데, 앞서 말한 작자의 메시지가 구체적인 스토리 라인에서는 매우 뚜렷한 지향점을 향해 집요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순정만화』에서 그 점을 들여다보면 김연우와 한수영의 사랑은 ‘나이차이 지우기’이고 강숙과 권하경의 사랑은 권하경의 ‘환한 미소 찾기’와 같은 것인데, 것처럼 강풀의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이고 뚜렷한 지향점을 갖는다는 것이다. 사랑의 잡다한 이야기를 펼치기 보다는 앞서 말한 지향점을 향한 궤도에 부딪히는 사건만이 집중적으로 그려져 독자는 긴밀한 스토리의 구성을 느낄 수 있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전개된다는 느낌과 그 지향점이 언제 이루어질까하는 극적 긴장감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강숙은 권하경과의 첫 만남에서 그녀의 환한 미소에 충격을 받는데 이후의 모든 그의 행동은 그녀의 환한 미소를 되찾아 주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로 집약된다.

아울러 『바보』에서는 스토리 라인은 바보의 모든 행동이 그녀가 어린 시절의 꿈대로 음악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예술가적 자신감을 되찾아 주는 것으로 설정된다. 바보는 그녀에게 그녀의 음악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되고 있다는 점과 그녀의 재능이 하늘이 내려준 것처럼 완벽하다는 믿음을 일깨워 준다. 거둬거둬 그녀의 어린 시절의 꿈과 재능을 일깨워 주고 그녀가 어린시절의 극적 체험에서 오는 자신감을 다시 찾도록 북돋아 준다. 바보의 그녀에 대한 사랑은 이 매우 구체적이고 뚜렷한 지향점을 향해 온통 모아진다. 그래서 인상이 선명하고 이야기는 빈틈이 없다.

둘째는 그의 장편만화에 등장하는 복선의 적절한 활용이다. 복선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야기의 극적 전개를 신빙성 있게 혹은 자연스럽게 이끌기 위한 장치이다. 사건이 비약되거나 극적 전환을 맞을 때 치밀하게 설정된 복선은 이야기의 개연성을 은밀하게 보장해 주는 장치이다. 강풀의 복선은 특히 항상 돌연하고 예측불허의 상황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진부하지 않다.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4명의 노인이 펼치는 슬픈 사랑의 이야기- 우유배달을 하는

김만석과 과지수거로 생계를 잇는 송이뿐이 사랑의 감정을 싹틔우고, 주차관리인인 장군봉은 치매에 걸린 아내를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첫 장면이 장군봉 부부의 상가에서 벌어지는 불상사이다. 문상객들이 79세에 죽은 장군봉을 두고 호상이라며 예를 갖추는데 대해 친구인 김만석은 격하게 화를 낸다. 노인은 늙었으니 당연히 죽어야 하는 거냐며 버럭 화를 내는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인다.

하지만 이 엉뚱한 행동은 『그대를 사랑합니다』의 결미에 가서야 충격적인 사실의 복선이 있었음이 밝혀진다. 장군봉은 치매에 걸린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아 절망의 나락으로 빠진다. 가난과 자식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란 가스를 틀어놓은 채 동반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자식들을 죄인 만드는 것이 마음에 걸려 김만석에게 유서를 남겨 자신들이 사고사로 죽은 것으로 위장해 달라고 부탁한다. 장군봉 부부가 죽은 현장에서 창틈을 막아 놓은 테이프를 눈물 속에서 뜯어내는 김만석의 모습과 상가 집에서 감정을 폭발하는 모습이 겹쳐지며 『그대를 사랑합니다』에 깔린 복선의 절묘함에 감탄이 나온다.

더욱이 나중에 김만석이 송이뿐에게 하는 절절한 고백- 김만석이 현장에 갔을 때 장군봉이 아직 살아있었다는 것과 그의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 속에서 복선과 반전은 더욱 생생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복선 끝에 걸리는 비밀이라는 것이 자살이면서도 그 죽음조차도 위장할 수밖에 없다는 기막힌 현실이어서 복선과 반전을 다루는 능숙한 솜씨가 돋보인다.

『아파트』에서는 복선이 예측불허이고 극적 변전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한층 극적이다. 『아파트』에서 미연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자신을 소외시킨 이웃에 대한 원망과 저주로 자살한 후 원혼이 되어 복수의 칼날을 가는데 그녀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은 똑 같은 고통을 느끼며 자살하게 된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자신과 주위에 여전히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곳을 떠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인물이 아파트의 사람들을 살리고자 애타게 헤매는 고혁인데 작품의 결미에서 그녀와 고혁은 애달픈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된다. 그녀는 이제 자신도 변했다는 기쁨과 희망을 말하며 이곳을 떠나려 하고, 고혁은 안타까움으로 그녀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이 갖겠다고 말한다.

정말 이제 신원이 완성된 화평의 자리인 셈인데 웬일인지 분위기에는 한편으로 어딘가 미심쩍고 켕기는 구석이 있다. 그 장면을 보자. 고혁은 거듭거듭 그녀의 고통을 나누겠다고는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그 어투나 집요함이 일상적인 위로의 분위기를 넘어서고 있다. 아니 그렇게 작자가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있을 수 있다는 불안한 긴장감이 스친다. 또 반대로 그녀의 독백 또한 예사롭지 않다. 고마움의 표현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고 있다.

거듭거듭 '내 아픔이 사라진다'가 반복되는데, 이제 자신에게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빠져 나갔다는 것이 불가항력인 것처럼 강조된다. 스스로 그것들을 벗어 던졌다는 것을 넘어서고 있다.

바로 이 미심쩍고 알 수 없는 스산한 느낌은 곧 충격적인 사실로 밝혀진다. 얼마 후 고혁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하고 그는 새로운 원귀가 되어 자신만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아니 저주의 말투에 가깝다. 고혁은 이제 어느덧 그녀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물려받은 채 그녀가 저주의 굿풀이를 하듯 다른 사람들을 향해 죽음의 길을 재촉하도록 유도하는 또 다른 '그녀'가 된 것이다. 다시 공포의 끈을 옥죄이는 섬뜩한 지점인데 그 복선이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다.

마지막으로 강풀의 이야기의 완결성에는 그의 긴 호흡 혹은 달리 표현해 어떤 조급함도 없이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가는 그의 입담이 지닌篤심이 눈에 띈다. 『순정만화』를 보자. 한수영과 김연우의 사랑, 강숙과 권하경의 사랑이 온갖 장애를 헤치고 진정한 결합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어느 한 곳 매듭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전개된다. 그래서 『순정만화』에는 이른바 신파조 멜로드라마에 보이는 극적 계기가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다. 즉 사랑과 이별에 불치병이나 가문의 몰락, 입신출세 같은 극적 계기가 사랑을 이루고 이별을 불러오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랑의 극점을 향해 어느덧 다가서는 모습이다. 그만큼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읽힌다. 하지만 그 과정은 그 극점을 향해 사건의 진행만큼 꼭 값하며 앞으로 진전되는 것이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보게 만든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이야기 전개는 힘은 무엇보다도 이야기를 여유 있게 풀어내는 강풀의篤심에서 연유한다. 강풀은 마치 그들 사이의 사랑이 펼쳐지는 장에 함께 나선 것처럼 흥미를 가지고 이모저모 관찰하며 여유 있게 이야기를 이끌고 있다.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다. 김연우는 한수영과의 첫 만남부터 설레는 감정을 느끼지만 언제나 과장하지 않고 그녀가 준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녀를 위해 따뜻한 커피 캔을 말없이 건넬 뿐이고, 그녀가 자신의 아픈 상처를 눈물로써 고백할 때에도 다만 그녀의 아픔에 같이 슬퍼할 뿐이다. 자신의 감정을 두드러지게 드러내 보이는 것은 다만 사랑이 극점에 다다른 지경에서의 탄식에 가까운 것일 뿐이며 그 긴 과정 동안 그는 그녀의 기쁨과 아픔에 같이 슬퍼하고 웃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감정의 동요는 항상 점점 더 큰 파동을 유지하며 다가오는 것이어서 어느새 둘 사이의 사랑의 크기는 눈사람처럼 커져만 가고 사랑의 절정에 조금씩 다가선다. 그래서 한 순간도 느슨한 감정이 싸이지 않는다.

한수영의 경우도 넥타이를 선물하고 문자메시지를 건네주는 행동을 거듭하지만 그것은 둘 사이의 나이차를 확인하면서 탄식했을 만큼 걱정적인 것은 아니고 조금씩 만남과 약속이

이어지면서 자신의 행동이 김연우의 어수룩함을 참지 못한 데서 오는 질타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이었음을, 또 아버지와의 아픈 이별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기도 했음을 서서히 지각하는 완행열차 같은 것이다.

특히 김연우와 한수영이 사랑으로 이어지는데 어쩌면 가장 뚜렷할 장애물이라 할 한수영 어머니와의 이해에 이르는 과정을 보라. 한수영의 어머니는 조금씩 밝혀지는 딸의 이상한 행동을 통해 딸이 어쩌면 이웃의 김연우를 사랑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그녀가 딸과 김연우 사이를 이해해 가는 과정을 보노라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강풀의 그곳한 똑심이 새삼 돋보인다. 한수영의 어머니가 부녀회 회장으로서 서명을 받기 위해 김연우의 집을 방문하고 그 곳에서 우연히 딸의 필체를 닮은 메모를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는데, 이것은 곧 딸의 방에서 발견된 똑같은 문구의 낙서가 발견되면서 일층 의혹을 더하게 된다. 이제 한수영의 어머니는 조금씩 딸의 의증과 행동을 헤아려 보기 시작하고, 김연우와 우연 혹은 필연의 만남을 거듭하며 그의 속내와 됴됨이를 꼼꼼하게 점검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딸과 김연우가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벌어지는 사건들의 절묘한 설정이나 인물들의 심리나 행동에 대한 섬세한 묘사가 눈에 띈지만, 무엇보다도 두 사람 사이의 숨은 비밀에 서서히 눈뜨가는 과정이 차분하고도 치밀하여 감탄을 자아낸다. 마치 독자가 그녀와 하나가 되어 서서히 김연우를 알아가며 두 연인 사이를 이해하고 축복해 줄만큼 스스로에 대한 충분하고도 여유 있는 설득의 시간을 함께 즐기고 있는 느낌이 든다.

## V. 맺음말

문화산업이나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이나 논의는 이제 그 분야의 유망함에 대한 장황한 강조나 특정 장르에 대한 개론적 논의를 벗어나야할 시점이다. 비록 그러한 논의들이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점은 인정되나 이제는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탐색해야할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이 글에서는 문화산업분야에서 ‘만화원작 전성시대’라는 말이 돌만큼 다른 분야 문화콘텐츠의 산출에 밀거름이 되고 있는 만화에 관심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중적 인기나 타 장르로의 전환이 두드러진 강풀의 장편만화를 논의의 중심에 두었다. 특히 그의 장편 만화 스토리텔링의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1. 강풀의 대중의 기호와 정서를 읽어내는 예민한 감각은 시사적 의미가 있는 바보형 인물의 설정이나, 계층적 경계를 지우며 성인의 세계로 진입한 고등학생들의 로맨스를 다룬 발 빠른 대응,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려졌거나 부모를 잃은 사람들의 근원적 상처 즉



분리불안에 대한 집요한 관심, 생존기 양식의 활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스크롤바를 내리면서 감상하게 되는 웹툰의 특성을 살려 영화 혹은 동영상에 가진 줌쇼트, 슬로우모션, 동시편집, 보이스 오프, 아웃 오브 포커스, 틸트 등의 기법을 적극적으로 살렸다. 특히 틸트 기법은 의문의 비밀발생에서 의외의 비밀폭로라는 미스터리물의 구조를 한 화면 내에서도 창출하는 효과까지 가져온다.

2. 강풀의 장편만화는 독특하게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시각으로 스스로의 삶에 대해 진솔하고 독백하는 다중화자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웃에 대한 따뜻한 이해가 행복한 세상을 가져온다는 주제와 태생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사건의 다양한 의미를 다층적 시각에서 들여다보는 신선함과 독백·고백의 형식이 주는 개인의 내밀한 심리나 감정의 진솔하고 극적인 표출, 사건과 서술자의 유연한 교체에 따른 흥미롭고 박진감 있는 전개, 참회와 성숙의 서사의 펍진성 등을 불러오고 있다.

3. 강풀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고 타인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간직해야 행복한 세상이 온다는 믿음을 반복하여 강조하는데, 그는 이 간결한 메시지를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에피소드들을 날카롭게 잡아 삽화로 완성시키는 놀라운 재주를 보인다. 또 그 삽화들은 주로 순진하고 심성 고운 사람들이 벌이는 순수하고 때로 어수룩하기까지 한, 하지만 그래서 따뜻한 감성을 불러오는 것들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강풀의 진보적 시각까지도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온다.

아울러 그는 감정의 격한 떨림 즉 슬픔이나 공포를 극적이고 때로 과장된 포즈로 드러내거나 자기희생의 눈물과 회한을 강조하고, 이별의 고통에 집착하는 등 멜로적 특성이나 강점을 십분 활용하면서도, 신세대의 발랄하고 유쾌한 감정이나 행동의 대비 혹은 공포의 적절한 변주 등을 통하여 멜로적 정서가 작위적인 신파조적 정서로 흐르지 않도록 능숙하게 통어하며 다루는 그 묘한 균형점을 보이고 있다.

4. 강풀의 장편만화가 보이는 스토리의 완결성은 '나이차이 지우기'나 '환한 미소찾기'처럼 스토리라인이 매우 뚜렷하고 구체적인 지향점을 갖는다는 점, 복선의 적절한 활용, 여유 있고 절제된 이야기 전개로 나타나는 긴 호흡의 서술 등에서 연유한다.

## 참고문헌

- 강풀, 『순정만화』1, 2, 문학세계사, 2004.
- 강풀, 『아파트』1, 2, 문학세계사, 2004.
- 강풀, 『바보』1, 2, 문학세계사, 2005.
- 강풀, 『그대를 사랑합니다』1, 2, 3, 문학세계사, 2007.
- 강풀, 『Timing 타이밍』1, 2, 3, 문학세계사, 2006.
- 가와쿠치 모도카, 『죽음과 그녀와 나』, 서울문화사, 2006.
- 김정환, 『남자, 여자, 그리고 영화』, 웅진북스, 2003.
-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덤불숲』, 『라쇼몽』, 좋은 생각, 2004.
- 요시다 아카미, 『리버스키스』, 시공사, 2004.
- 이반 워드, 『공포증』, 태보영 역, 이제이북스.
- 임철우, 『붉은방』,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1988.
- 최승현, 「원작 ‘미녀는 괴로워’ · ‘하얀거탑’의 공통점은」, 조선일보 2007.3.26.
- 홍정선, 「폭력과 작가의 양심 - 임철우 론」, 『문학사상』, 1988, 12월호.
- 하일지, 『마노카비나의 추억』, 민음사, 2002.
- 한국일어일문학회 편, 『나쓰메 소세끼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까지』, 글로세움, 2003.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편, 『만화콘텐츠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The Competitive Power of Kangfull's Feature-Length Cartoon Storytelling

Kang, Hyun-koo

1. Kangfull has a keen eye to read the taste of the masses. To begin with, he deals with the romances of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the major group of the Internet users, setting them as the main role players in loving with adults. He also created a kind of idiot character who has an implicational meaning. He described a character who lived with an original wound, due to his/her loss of parents or being deserted at their childhood.

2. Kangfull uses multiple persona and is describing each character's horror, sorrow and secret psychology without filtering. Every character speaks himself/herself with their own viewpoints and tones, which portrays every character's life and inner world as it is and at the same time, dramatically.

3. Kangfull repeats the message that a happy world comes only when people understand the agonies of other people. To deliver this simple message effectively, he efficiently utilizes cool episodes which have great capabilities of emotional rousing. He also skillfully commands techniques to control melodramatic sentiments appropriately.

4. Kangfull has the characteristic of setting a story with an obvious ending point, utilizing underplots properly, describing long breaths, etc., which can be called parts of the completion of a story.

Key Words : literary amagination, feature-length cartoon, implicational meaning  
multiple persona, secret psychology, melodramatic sentiments, underplot